잘못된 성장의 사례
2023.9.5-9.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강현주

〈목　　차〉

1장　DAC Artist 프로그램 ---- 2

2장　DAC Artist 강현주 인터뷰 ---- 4

3장　시놉시스 및 인물소개 ---- 8

4장　작·연출 노트 ---- 10

5장　아직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 12

6장　작품 이해자료 ---- 15

7장　연습 노트 ---- 16

8장　배우 소개 ---- 18

9장　연습 사진 ---- 24

10장　무대디자인 노트 ---- 26

11장　크레딧 및 참고문헌 ---- 28

12장　광고 ---- 30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아티스트
Artist
(2008-2023)

배해률(극작가)
신진호(연출가)

강현주(작·연출가)
진해정(작·연출가)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다트〉〈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뻘〉〈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폭스파인더〉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깃븐우리절믄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y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고연옥(극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교수)

"관객들이 무대 위 인물과 같은 운동성을 갖게 되는 걸 상상해요."

강현주와는 2012년 극작가와 조연출로 처음 만났다. 빈틈없이 꽉 다문 입매가 선명히 기억날 정도로 말이 없었다. 강현주의 첫 작품은 당시 극단 신입 단원들과 단편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작은 워크숍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토록 가볍게 말할 수 있다니. 난 아직도 그 밤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결정이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연출이 등장했다고 밤새 얘기했다. 그 후 극단을 나간 강현주와 따로 밥 한 끼를 먹었다. 그런 식의 이별은 너무 흔했지만 유독 많이 아팠다. 그 후 강현주는 우연히 만날 때마다 어디에서 조연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연출은 안 해?"라고 물으면 또 빈틈없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이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2018년 아르코 창작아카데미 멘토였던 나는 극작가에게 연출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고 배해률 극작가의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의 연출로 강현주를 떠올렸다. 배해률 작가는 연출 경력이 그리 없던 강현주와의 작업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정작 강현주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며 머뭇거렸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다 갖춰서 하는 사람 없어. 할 수 있을 때 해!" 그렇게 강현주는 2019년 공식적인 연출가 데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강현주의 연출작 중 〈배를 엮다〉, 〈99% 천재일기〉 두 편의 공연을 보았고 짧은 인사를 나누곤 헤어졌다. 인터뷰를 위해 강현주가 쓴 〈잘못된 성장의 사례〉 대본을 받아 읽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마주 앉아 어쩌면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나눴다.

Q. 〈잘못된 성장의 사례〉를 읽고 식물분자생물학이라는 낯선 분야를 충실히 리서치한, 오랜 시간 공들인 희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희곡 작가로서의 계획이 있었던 것인가?

A. 학교 다닐 때는 언젠가 희곡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조연출로 여러 작품 만나면서 오히려 쓸 생각이 없어졌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그러다 (작품에도 있지만) 가정폭력 당한 아이에게 누군가 무심코 '저런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라고 말하는 걸 듣고 언젠가 내가 이걸 이야기로 쓸 수 있을 만큼 준비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삶에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우연한 기회에 식물학자 호프 자런의 『랩걸』을 읽게 되었는데 식물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에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방법을 깨우친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틈틈이 관련 책과 논문을 읽고 인터뷰도 하면서 준비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전에 〈배를 엮다〉라는 작품을 안 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일본 소설 원작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가져오며 인터뷰를 많이 했다. 그때의 경험이 도움 되었다.

〈배를 엮다〉(2021, 여행자극장)
©즐거운생활

Q. 〈잘못된 성장의 사례〉는 소도시 국립대학의 연구실이고, 〈배를 엮다〉의 배경은 한 출판사의 사전 편집부였다. 분명 다른 공간이지만, 구성원들이 쉽지 않은 목표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에서 묘하게 연결된다.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은 〈배를 엮다〉의 꿉꿉한 사무실과 그곳과 한 몸이 된 인물들의 면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디지털 시대에 13년간 종이사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력적이었지만 반면 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어쩜 저렇게 사이가 좋지? 왜 사람들이 다 선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 (웃음)

A. '세상엔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 그때 그렇게 말하고 가셨다. (웃음) 그 말을 정말 오래오래 생각했다. 공연이 낭만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처음 원작을 읽고는 내가 모르는 세계라 그런지 훨씬 더 낭만적으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좋은 사람만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내내 생각했다. 나름 빌런도 만들고 사이코패스도 등장시켜 봤는데 말을 썼다가 지우고 퇴장시켜 버리더라. 내가 무대에서 그들의 말을 듣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Q. 성향의 차이일 것이다. 악인의 등장과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싼 악을 표현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성장의 사례〉는 오염된 환경보다 더 나쁜 것은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악의 없는 시선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있는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다.

A. 역시 모르는 분야라 처음엔 연구자들에 대한 환상도 있었다. 인터뷰를 해보니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도 많고 무책임하게 사라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곳 역시 일종의 생태환경이라는 생각에서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완벽한 환경이 주어질 순 없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성 유전자를 찾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Q. 첫 공식 연출작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이 떠오른다. 가해와 피해가 전복되는 강력한 드라마 속에서 폭력의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폭력이 전면에 드러나는 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배해률 작가에게 처음 시놉시스를 받고 많이 놀랐다. 〈잘못된 성장의

사례〉의 문제의식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작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대면하는 이야기를 썼다.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누군가 공연을 보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조심스러웠다. 실은 그보다도 조연출을 8년이나 했는데 해석하는 것이나 장면 만드는 것 모든 게 쉽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건가 자괴감도 들었다.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식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세 인물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다. 그때도 지금도 폭력의 문제를 무대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여전히 어렵다.

Q. 기왕 말이 나왔으니 묻고 싶다. 데뷔 전 조연출로 일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어떤 이유였을까.

A. 작년까지도 조연출을 했으니 10년을 한 셈이다. 처음 4~5년은 정말 재밌게 했다.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대학 다니는 심정으로 일했다. 선생님들 작품 할 때는 난 저런 생각 절대 못 할 텐데 싶어 자신이 없어졌고, 또래 중에는 동시대적 문제에 예민한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주저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조연출을 오래 하다 보니 스스로 방어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졌다. 나중에는 뮤지컬, 창극 같은 타 장르나 아예 전혀 모르는 프로덕션과 극장에서 조연출을 했다. 그것이 오히려 연극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Q. 〈시장극장〉은 공연을 직접 못 보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공간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공간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연출이 흥미로웠다.

〈시장극장〉(2019) ©김민지

A. 극단에서 만난 친구들과 동작구 지역형 청년예술단에 선정되었는데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장승배기에 있는 영도시장을 배경으로 이머시브 공연을 만들었다. 재개발을 앞두고 상점의 80% 이상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은 채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마치 쇼윈도처럼 보여 전시장 같은 장면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두 갈래 길로 나뉘는 병렬구조에 그 끝에는 넓은 공터가 있어서 관객들이 두 인물을 따라가는 연극을 찾다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름과 연기〉를 각색하여 공연했다. 극장 밖 공연이지만 극장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해 준 작품이었다.

Q. 작년 삼일로창고극장에서 공연된 청소년극 〈99% 천재일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낭독공연임에도 그 작은 극장과 이야기, 배우와 관객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로 일렁이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A. 대본을 받고 나수민 작가를 직접 만났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썼고 본인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잘 해내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다. 준비하면서 청소년극이 뭘까 고민했는데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작품에서 쇼트 스케이트 선수인 주인공에게 어느 날 친구가 경기하는 걸 구경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주인공이 오지 말라고 한다. 나 맨날 실격당하거나 꼴찌 한다고. 그 얘길 듣고 친구가 되게 놀란다. 그 반응이 정말 많이 공감되었다. 그 시절엔 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친구의 실패를 보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 수많은 디테일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했던 작품이었다.

Q. 그간의 작품들을 돌이켜보니 공간과 이야기를 결합하기 위한 집요한 고민과 시도가 엿보인다.

A. 좋은 무용공연을 보고 나면 관객들은 공연에서 본 무용수와 같은 근육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그 말을 좋아한다. 연극도 그러할 것이다. 관객들이 공연 내내 등장인물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 무대 위의 인물과 같은 것을 보며 마침내 같은 운동성을 갖게 되는 걸 상상한다. 등장인물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적인 빛과 소리를 재현하고 그중에서 무엇을 확장할 것인지 선택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여전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그래도 나에게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

시놉시스

지방 소도시 국립대학 식물분자생물학 연구실.
교수 은주가 운영하는 이 연구실에서는 식물 속에 존재하는
저항성 유전자를 찾고 있다. 연구실 초창기 멤버인 박사과정
혜경과 오직 논문 통과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석사과정 예지,
식물학자가 될 꿈에 부푼 인턴 인범, 출산 후 복귀한 포스트닥터
지연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삶의 방식도 목표도 다르다.
한여름 무더위로 지역 일대가 정전된 어느 날. 혜경은 교문
앞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있던 아이를 보게 되고, 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되듯 서서히 지난 경험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인물 소개

혜경
30대 초반. 응용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연구실 초창기 멤버.

은주
50대 초반.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연구실 PI(책임자).

예지
20대 후반. 응용생명과학부 석사과정. 현재 최대 관심사는
논문 통과와 대기업 입사다.

인범
20대 중반. 꿈에 부푼 3학년 편입생. 인턴으로
은주의 연구실에 들어온다.

지연
30대 중반. 포닥(박사후 연구원).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후, 복귀한다.

도윤
30대 초반. 종자원 공무원. 혜경의 동기. '유미'라는 이름으로
식물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강현주
작·연출

DAC Artist

각색·연출 〈배를 엮다〉
구성·연출 〈시장극장〉
연출 〈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

작·연출노트

종종 누군가의 삶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가장한 편견'을 마주하곤 한다.

생명을 가진 개체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삶을 짐작하는 일이
가능하긴 한 걸까.
삶에는 수많은 우연과 오류가 존재하고,
우리가 결코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

예측 불가능한 각각의 삶을
단정하기보다
지지하는 마음을 기대해 본다.

아직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안선영(생명다양성재단 책임연구원)

모든 이야기는 생명의 '삶'에서 시작되고 모든 생명의 '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삶에서의 현실이 실제이고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야기에서 현실은 있을 법한 일을 의미한다. 있을 법한 일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내고 인물들을 등장시킨다. 실제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연극에서 등장인물들은 극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요소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떤 등장인물을 떠올리고 그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기억한다. 극에서는 삶의 단면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들은 치밀한 구성을 바탕으로 서사에 의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내용의 개연성을 확보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사연이 있다. 다른 연극이었다면 등장인물 중 한, 두 명은 본인의 존재감을 뽐냈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성장의 사례〉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각자 주인공으로 돋보이겠다는 욕구가 넘치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연극 전체를 완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혜경, 은주, 예지, 인범, 지연, 도윤 모든 등장인물들이 식물처럼 보인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물의 이미지처럼 조용하거나 서로의 배경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미있다.

식물은 지구에 공룡이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육지에 등장해서 스스로 기발한 장치들을 만들어 다양하고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아주 작은 풀부터 커다란 나무까지 살아가는 환경이나 크기, 모양, 색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보통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태양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생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단한 생명체는 고산지대의 냉혹한 날씨에서, 초원의 큰 일교차 속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의 바위에서, 엄청 더운 사막에서도 살 수 있다. 포충낭을 만들어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다른 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빼앗아 먹기도 한다. 화학물질을 분비해 자신의 몸을 지키거나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타감작용도 하고 수분을 매개해 주는 곤충의 생식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유인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식물이라는 생명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고 한 식물에서도 그 형태나 모양은 천차만별이다. 소나무 1백 그루가 있으면 1백 그루는 모두 다르다. 남산에 사는 소나무와 경복궁 복원에도 사용된 동해안 울진의 소나무는 자세히 분류하는 식물학자는 다른 종으로 분류할 만큼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가로수에 한 줄로 심어진 은행나무도 각자 모양이 다르고 가을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것도 시간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은 그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기도 하지만 식물들이 살고 있는 미소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소서식지는 생물 개체 수준에서 그 서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지의 영향권을 의미하고 쉽게 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암벽, 햇빛, 고도 등의 영향에 따라 같은 종에서도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수많은 식물탐험가와 식물학자들이 식물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수집하고, 관찰하고, 재배하고, 연구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식물에 대해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사람은 오죽할까.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까?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보면 볼수록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마 '식물스러운' 주인공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무대는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면 누구나 거의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벌어진다. 인물, 대화, 사건 등 이야기 흐름을 책임지는 많은 부분들이 식물을 통해 드러나고 인간과 식물 사이를 오가며 동시에 전개된다. 특히 식물을 실험 재료로 재배하고 관찰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과 번뇌를 이야기한다. 식물이 좋아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주인공들은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숲이 아닌 딱딱한 건물의 실험실 안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멸균 장갑을 끼고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끝없이 실험을 반복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지속하는 스스로 세운 삶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을 계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극 중에서 예지의 "누군가 나를 삽으로 퍼서 내 뿌리까지 조심히 꺼내서 표본으로 만든다면, 지금 나는 잘못된 성장의 사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처럼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잘못된 성장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쉽다. SNS를 통해 타인의 일상생활을 보거나 나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기도 쉽다. 이런 점은 역설적으로 삶의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피아제(Jean Piaget, 심리학자)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인지란 아는 것에 관련된 모든 과정으로 인지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구조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또한 주관적인 존재로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환경의 영향도 변화한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도 인생의 방향은 모두 다르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식물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햇빛, 강수량, 사면, 고도, 경사 등 여러 가지다. 이 요인들이 한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각각의 요인이 얼마만큼씩 영향을 주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동해안 소나무림에서 산불 후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관찰했을 때 산불이라는 같은 사고를 겪은 후에 재생하거나 회복하는 식물들의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도 식물도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겪은 후의 삶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누구의 삶도 단정 지을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은 모두 다른 개인의 능력이다.

극에 등장하는 식물 주인공은 애기장대이다. 식물의 발달, 유전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작고 하얀 꽃이 피는 십자화과의 식물이다. 유전체의 염기서열이 완전하게 밝혀진 최초의 식물로 과학 실험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식물 스트레스 저항성 유전자를 찾기 위한 혜경의 연구에서도 애기장대가 실험재료로 사용됐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을 계속하다가 설정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못 자랐어야 하는 애기장대가 잘 자라게 되어 혜경이 애기장대를 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실험체이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은 거"라는 도윤의 말은 울림이 있다. 유전체나 생장주기 등 다른 식물에 비해서도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애기장대조차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생물의 종 수가 아닌 생명을 가진 개체의 수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애기장대도 사람도 누군가의 삶을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쉽게 단정 짓는 오류를 범한다. 학교 앞에서 아빠에게 맞는 아이를 봤을 때 은주는 "그런 애들은 커서 뭐가 될까"라는 걱정을 가장한 편견을 내비친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걱정을 가장한 편견을 만난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모 아래에서는 모두 문제가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은주와 같은 편견을 가진 우리에게 혜경은 대답한다.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될 거라고. 모두 다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은 모두 다르다. 엄마 참나무에서 함께 자란 수백 개의 도토리도, 가을이 되어 함께 어딘가로 굴러간 수십 개의 도토리도, 비슷한 나무 아래 자리를 잡은 몇 개의 도토리도 누구는 싹이 나고, 누구는 다람쥐에게 먹히고, 누구는 사람의 손에 들려 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성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똑같을 수 없다. 사람도 같은 사고와 사건을 겪었다고 해도 모두 같은 길을 가지는 않는다.

〈잘못된 성장의 사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이야기가 다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성장은 동식물이 자라서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20세 전후부터 물리적인 성장이 중지되고 남은 수명은 사회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남은 세월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물은 동물인 우리와는 다르다. 식물의 성장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성장을 1년 동안 하거나 수천 년을 반복하는 나무도 있다. 그 어떤 식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각자의 삶과 존재 이유가 있다. 잘못된 성장의 사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에서는 잡초도 나무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자기 삶의 주인공이다.

작품 이해자료
나수경(조연출)

1. 실험 도구

교반기
액체와 액체, 액체와 고체 또는 분체 등을 휘저어 섞기 위한 기구. 가열판 위에 놓인 비커를 가열시키면서 내부를 회전 교반시키는 장치

배양기
세균, 미생물 혹은 세포를 인공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

배양실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를 배양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간

오토클레이브(autoclave)
고압멸균기. 고온, 고압하에서 합성, 분해, 승화, 추출 등 화학처리를 하는 내열, 내압성 용기

클린벤치(clean bench)
무균작업 실험대. 실험대 공간에 분진, 포자 등이 들어있지 않은 깨끗한 공기로 채우는 장치. 시료, 기구 내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파이펫(pipette)
일정량의 액체 양을 취할 수 있게 만든 도구

파이펫팁
파이펫으로 액체를 옮길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도구. 사이즈가 다양하며 멸균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2. 실험 용어

컨탐(contamination)
오염

카스 넘버(CAS(Chemical Abstract Service) No)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 번호. CAS는 190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화학정보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저온처리
영양생장을 인위적으로 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낮은 온도로 설정한 곳에 넣어두는 것

배지(培地)
미생물이나 동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해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다시 특수한 목적을 위한 물질을 넣어 혼합한 것

메서드(method)
실험방법

포닥(포스트닥터, Post Doctor)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합성효소
분자의 결합을 끊고 연결하여 새로운 생성물을 만드는 효소

탈수효소
기질에서 물을 제거하여 이중 결합 및 삼중 결합을 형성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분해효소

3. 그 외

캠벨
『캠벨 생명과학』. 생물학 이론서

자생식물
자연에서 저절로 자라는 식물

야책(野冊)
식물표본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채집할 때 사용하는 도구. 두 장의 판에 끈을 맨 형태로 채집한 식물을 판 속에 펴 넣어 돌아올 때까지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

연습 노트
나수경(조연출)

식물분자생물학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다. 맨손처럼 익숙한 신체가 실험실 안에서는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장갑도 다르다. 오토클레이브를 열고 닫을 때는 고온멸균 장갑을 끼고, 클린벤치 앞에서는 에탄올 소독제 뿌리는 걸 잊지 않는 것. 배양기 안의 플레이트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게 되기까지. 한 공간을 이해하는 일은 한 사람을 이해하는 일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실험 도구 워크숍

실험 테이블에는 파이펫도 있고, 교반기도 있고, 플라스크, 시약통, 팁, 팁통도 있는데 이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다. 22년 5월까지 건국대학교 식물발달유전체학 연구실 소속이었던 장세정님에게 실험기구 사용법을 배웠다. 막연했던 동작들이 정교해졌다. 파이펫팅, 배지 만드는 법, 오토클레이브, 클린벤치 사용법뿐만 아니라 라텍스 장갑(한 번에 끼고 벗기가 무척 어렵다!) 멋지게 끼는 법도 배웠다. 시약 제조, 멸균작업 등 각 작업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면서 동선에도 목적이 생겼다.

연습 스케치

첫 연습 날, 이미 연습실에는 클린벤치와 오토클레이브, 배양기가 들어와 있었다. 실험실이라는 공간의 생리도 낯설다. 박사는 보통 몇 년 동안 하는지, 포스트닥터는 무엇인지, 교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인물들이 실험실 안과 밖에서 보낸 시간들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틀 동안의 테이블 작업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면연습을 시작하면서 파이펫이나 플라스크처럼 실제 실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낯선 도구들을 손에 익혀야 했다. 인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연구하는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실험실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사소한 동작들도 세심하게 다듬었다. 극 중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각 시기마다 인물들이 겪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했다. 이제 막 실험실에 들어온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익숙하게 실험 도구들을 다루게 되는지, 논문심사를 앞두었던 인물의 전후는 얼마만큼 다를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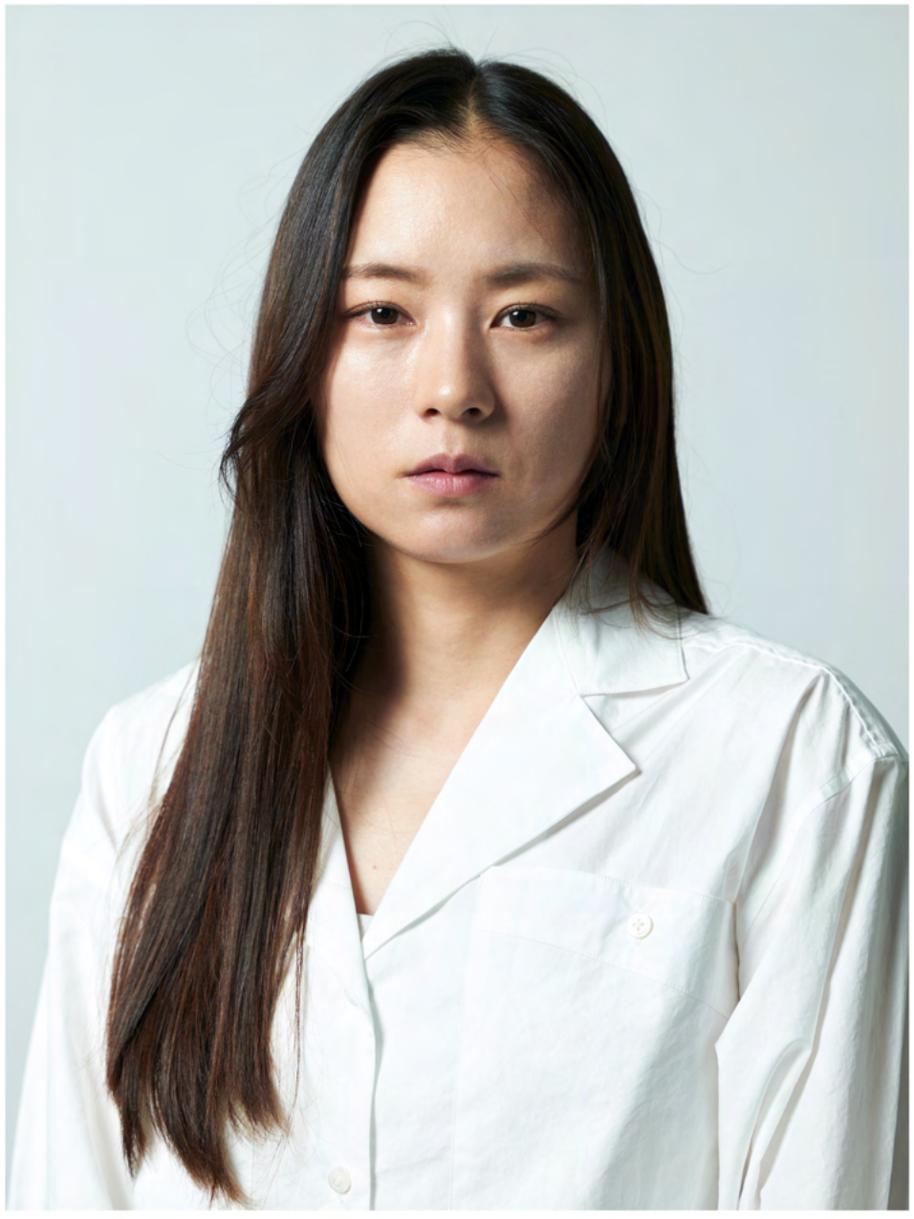
실험실이라는 한 공간에 있지만 업무 테이블과 같은 개인 공간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각 인물들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순간에 발현될지, 그리고 그 이후가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인지. 잘 지켜보는 마음으로 연습했다.

연습풍경 1.

연습 첫 주에 등장한 안마 매트. 매트 위에 누우면 안마 기계가 일정한 비트 음을 내면서 안마를 해준다! 연습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던 고마운 안마 매트. 연습 템포가 늘어졌다면? 안마 매트의 빠른 비트로(쿵-쿵-쿵-) 늘어진 연습 템포도 바로 잡을 수 있다. 😊

연습풍경 2.

극 중 실험만큼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뻐찜'. 파이펫팅도 배웠고 멸균작업도 배웠는데 뻐찜은 안 배웠다. 연출님 추천 맛집(을지로 위치)으로 뻐찜을 배우러 가다. 뻐찜… 맛이 좋다! 매콤하다! 더 알고 싶다!



공예지

예지 역

연극 〈다페르튜토 스튜디오〉〈노란 달〉〈글로리아〉 외
영화 〈경〉〈셔틀콕〉〈경성학교〉〈세상끝의 사랑〉
〈여고생〉〈칠흙〉 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킹더랜드〉 외

류혜린

혜경 역

연극 〈응, 잘가〉〈복길잡화점〉〈호모 플라스티쿠스〉
〈1인용 식탁〉〈청춘, 간다〉〈정물화〉〈오빠가 돌아왔다〉
〈도살장의 시간〉 외
드라마 〈더게임: 0시를 향하여〉〈슬기로운 의사생활 2〉
〈커피야 부탁해〉〈투깝스〉〈김과장〉〈w〉
〈일리있는 사랑〉 외
영화 〈부곡 하와이〉〈써니〉〈족구왕〉 외

수상 2015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청춘, 간다〉

박인지

지연 역

연극 〈응, 잘가〉〈배를 엮다〉〈심청〉〈벚나무 동산〉
〈로미오와 줄리엣〉〈구름〉〈삼국유사 연극만발-
남산에서 길을 잃다〉〈트라우마 수리공〉〈오셀로〉 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영화 〈여섯 개의 밤〉〈비상선언〉〈작은 방안의 소녀〉
〈연애 빠진 로맨스〉〈킬러 스웰〉〈성난황소〉
〈죽여주는 여자〉〈디렉터스 컷〉〈용의자〉 외

이지현

은주 역

연극 〈20세기 블루스〉〈편입생〉〈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이게 마지막이야〉〈막다른 곳의 궁전〉
〈로풍찬 유랑극장〉〈달나라 연속극〉 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 3〉〈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린마더스 클럽〉〈서른,아홉〉〈안녕,드라큘라〉
〈아름다운 세상〉〈더 패키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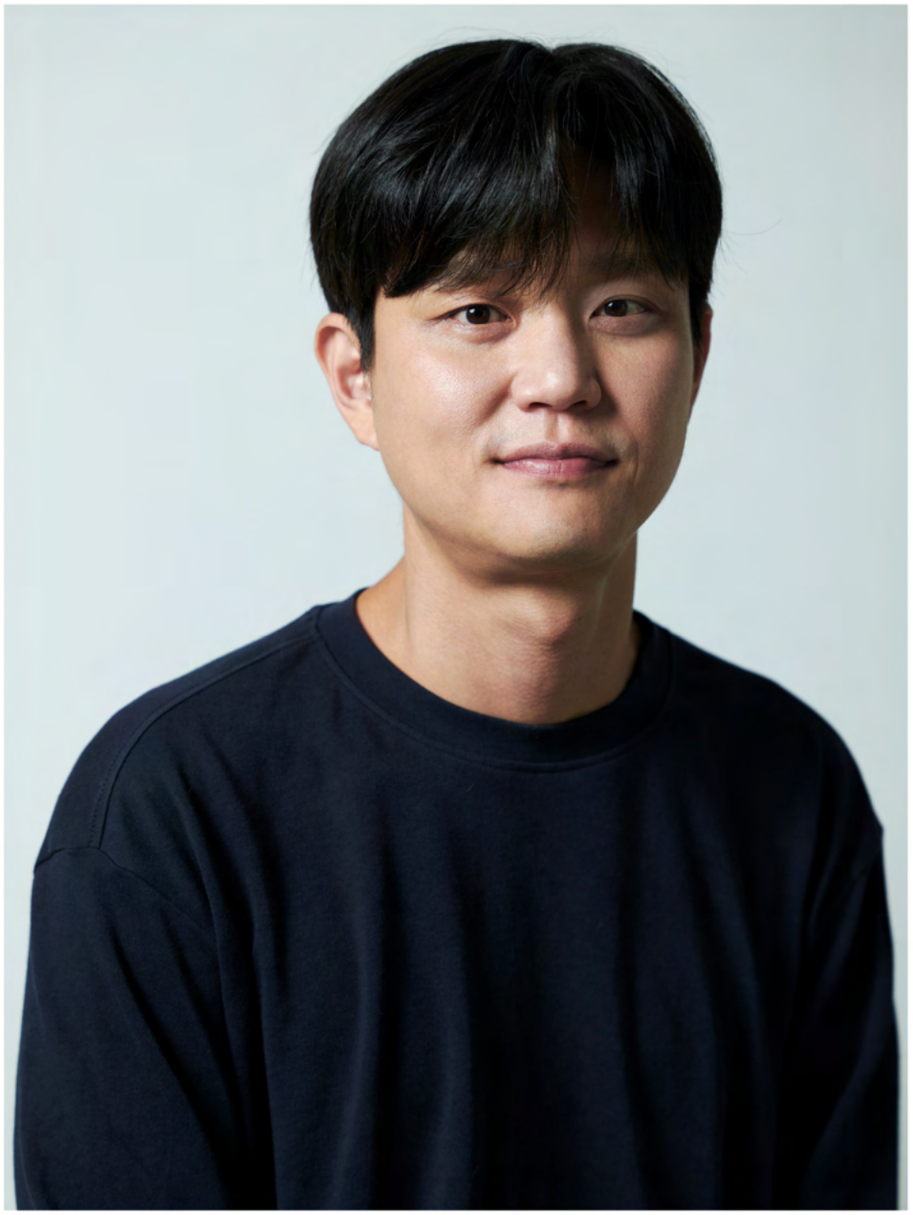
영화 〈드림〉

수상 2017 하얀수건상
2012 제33회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그리고 또 하루〉
2009 제46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시동라사〉

이휘종

인범 역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보이스 오브 밀레니엄〉〈B클래스〉
〈마우스피스〉〈유리동물원〉〈터칭 더 보이드〉 외



황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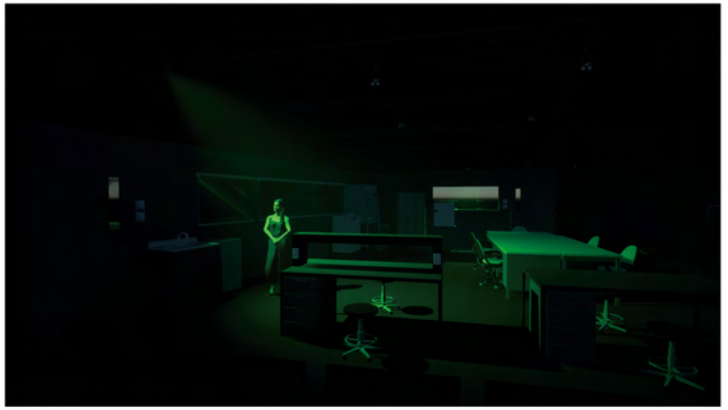
도윤 역

연극 〈배를 엮다〉〈비엔나 소시지 야채볶음〉〈가제 317〉
〈웃는 동안〉〈러브〉 외
드라마 〈어느 날〉〈도깨비〉〈나의 아저씨〉〈보이스〉
〈뱀파이어 탐정〉 외
영화 〈비²밀〉〈오빠생각〉〈모던 보이〉〈우는 남자〉〈그리다〉 외

무대디자인 노트
정승준

누구에겐 위로의 공간이, 누구에겐 도피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을
식물분자생물학 연구소 실험실.
다양한 식물분자 실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이 실험실.
각기 다른 나이, 다른 상황,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성장 과정의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한다. 연구 과정에 따라
실험은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실험자의 의도가 아닐까.

나의 성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왔을까?
지금의 나는 성공 사례일까, 실패 사례일까.



DAC Artist 강현주
잘못된 성장의 사례

2023.9.5-9.2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강현주

출연
공예지 류혜린 박인지 이지현
이휘종 황상경

조연출
나수경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무대디자인
정승준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
제작팀: 김세진 차승호 정우근 이종민
이범용 이승용 정병문 정재현)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 작화팀:
박지원 김미경 조정숙 김용선)

소품디자인·제작
권민희

소품어시스턴트
박선주

조명디자인
정유석

조명어시스턴트
정우원

조명크루
김휘수 한성민 이현직 조은성 김은빈
정주연 유보민 강민지

음악
옴브레

음향디자인
B.P

음향·영상오퍼레이터
박하은

영상디자인·작업
정혜지

영상어시스턴트
정경은

의상디자인·제작
팩토리 88 (대표: 오현희)

분장디자인
정지윤

분장팀
박주디

무대크루
이정희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영상기록·촬영
업플레이스 (대표: 오득영)

사진
정희승(포스터, 프로필)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연습,
공연)

SNS컨텐츠제작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도움주신 분
장세정
김규리
신우근(국립종자원)
고효림(피플바이오)
이효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안선영(생명다양성재단)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박소언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이보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티켓
이희정 최시윤

사무
박세연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준식

조명
황동철 왕은지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지현 박인지 나수경 이휘종 강현주 공예지 류혜린 황상경

참고문헌
호프 자런, 『랩걸』, (주)알마, 2017
안희경, 『식물이라는 우주』, 시공사, 2021
마르 장송, 사를로트 포브, 『보따니스트』, 가지, 2021
스테파노 만쿠소, 『식물, 세계를 모험하다』, 더숲, 2020
이나가키 히데히로, 『싸우는 식물』, 더숲, 2018
이나가키 히데히로, 『전략가, 잡초』, 더숲, 2021
박중환, 『식물의 인문학』, 한길사, 2014
이소영, 『식물의 책』, 책읽는수요일, 2019
이소영, 『식물과 나』, 글항아리, 2021
신혜우, 『식물학자의 노트』, 김영사, 2021
올리버 색스, 『올리버 색스의 오악사카 저널』, 알마, 2013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에드워드 윌슨, 『창의성의 기원』, 사이언스북스, 2020
대니얼 샤모비츠, 『은밀하고 위대한 식물의 감각법』, 다른, 2019
윤대진, "식물의 고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기작", 『식물생명공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5
김성화, "식물학자 신혜우가 식물을 탐험하는 이유", 〈론리플래닛 매거진 코리아〉, 2020.10.27

"만약에 누가 지금 나를 삽으로 퍼서,
내 뿌리까지 조심히 꺼내서 표본으로 만든다면 …
지금 나는, 왠지 잘못된 성장의 사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 같거든요." 본문 중에서

잘못된 성장의 사례

이음
희곡선

이음희곡선 19
강현주 지음

180쪽 · 12,000원
온 ·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희곡선

001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 박근형
002 햇빛샤워 · 장우재
003 처의 감각 · 고연옥
004 썬샤인의 전사들 · 김은성
005 파란나라 · 김수정
006 에어콘 없는 방 · 고영범
007 옥상 밭 고추는 왜 · 장우재
008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 최치언
009 두 번째 시간 · 이보람
010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 윤성호
011 7번국도 · 배해률
012 명왕성에서 · 박상현
013 묵적지수 · 서민준
014 왕서개 이야기 · 김도영
015 액트리스원/액트리스투 · 정진새
016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 김연재
017 이홍도 자서전(나의극작인생) · 이홍도
018 클래스(CLASS) · 진주

러브 앤 인포메이션
Love and Information

2023.10.17-11.4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화수목금 8시
토일 3시
월 공연없음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카릴 처칠
Caryl Churchill
번역 김수아
연출 진해정
드라마터그 김민조

출연
권은혜 권정훈
성수연 이주협
황은후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진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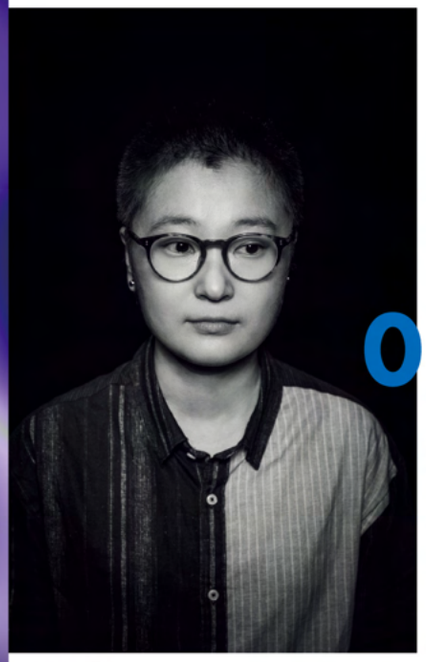
DOOSAN
Gallery

수신자들
정희민
HEEMIN CHUNG

2023. 9. 13. – 10. 21.

DOOSAN GALLERY

RECEIVERS



©국립극단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 신작

이런 밤, 들 가운데서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907(구공칠)**
작 • 연출 **설유진**
출연 **곽지숙 옥자연 윤현길 최정현 하영미**

2023.11.21-12.9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화수목금 8시 토일 3시 월쉼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8,000원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